

2001년 여학생회 선거

0. 들어가며

2001

여성의 힘으로 개척해온 새로운 청년

50년 여성의 길결될 힘으로 자주적 여학생회·건설하여

자주통일조국, 평등한 인간해방의 2001년을 만들어 갑시다

여성의 시대, 자주의 시대가 될 것이라는 21세기 그 찬란한 새세기의 달이 올랐습니다.

20세기 새로운 천년의 출발은 기간 2천년 아니 기원전까지 인류의 출발과도 흡사하게 오랜기간 차별과 억압속에 고통받았고 한편으로 줄기차게 저항하며 살아왔던 여성들에게 있어서 기간 여성 인류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새로운 세기 진정 평등하고 자유로운 세상을 꿈꾸며 새롭게 결의를 다지는 해였습니다. 특히나 바로 전 이땅 한반도 20세기는 참으로 격동의 세기였습니다. 1900여년동안의 변화보다도 더 빠른 변화와 사건들로 점철된 세기. 특히 한반도는 그 시작부터 말까지 세계의 변화의 흐름과 더불어 열강의 쟁탈전속에서 식민지와 전쟁 분단을 겪었고 내적 민주화와 경제적 발전의 도상에서 파란만장한 백년의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격동의 변화는 여성들의 삶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근대화와 더불어 봉건적 인식이 깨어지면서 여성도 남성과 동등하게 사회의 주인으로 나서야 한다는 남녀평등의식을 포함한 사상들이 풍미하고 제도적인 신분제 철폐와 경제적 구조의 변화는 여성을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지위를 가질 수 있게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땅 질곡의 식민지역사와 전쟁은 여성의 삶을 나락으로 빠뜨리게 되었고 근대화 경제부흥은 여성에게 또 다른 사회적 착취를 낳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들은 그저 상황에 순응할 것이 아니라 역사의 주인은 민중이고 여성또한 이땅의 주인이라는 권리의식이 높아지고 여성의 힘으로 여성들의 문제를 풀어내고자 하는 집단적인 움직임들이 가시화되면서 노동쟁의 및 투쟁들이 이어지고 여성들의 조직이 건설되면서 여성해방 인간해방이라는 과제가 사회적 움직임으로 나서게 됩니다.

이러한 많은 변화와 발전이 교차되면서 살아왔던 지난 20세기의 여성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새로운 천년 새로운 세기를 맞는 시점에서 여성은 다시한번 새로운 결의로 2000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 2000년 변화한 것과 변화하지 않은 것들

2000년 새로운 세기의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자주와 민족 대단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올해 6·15공동선언을 통해 한반도에 불어닥친 통일의 바람은 왔다 사라지는 바람을 넘어 전민족을 흥분의 도가니로 몰아가기 충분했습니다. 첫 남북 정상의 상봉과 이어지는 수뇌회담 이산가족 방문, 경의선 철도복원등 구체적인 통일을 위한 가시적인 활동들이 나날히 신문지상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속에서 민족 대단결의식이 고취되어가고 있고 이는 자연스럽게 민족자주의 문제로 나아가면서 주한미군의 주둔의 명분을 희석화하고 있고 1999년말부터 터져나오는 노근리를 비롯한 양민학살 문제가 이후 주한미군의 범죄 및 매향리문제들로 이어지면서 소파개정의 전국민적 목소리가 울려펴지고 이는 이제의 경제침탈과 맞물려 곧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지배와 간섭을 거부하는 투쟁으로 이어져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반미와 통일은 결코 운동권들만의 전문용어가 아닌 4천만 7천만 겨레의 공동의 민족적 과제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주, 민주, 통일운동에 유리한 정세를 조성하고 각 민족민주운동세력을 굳게 단결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고 국가보안법이 유명무실해지면서 실지로 탄압의 명분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미국은 점점 세계적인 자신의 지위의 몰락과 함께 한반도의 영향력이 떨어지고 있고 미국을 위시로한 친미 보수세력들도 자체적인 내분과 정쟁으로 점점 민심을 잃고 지지기반이 약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미국과 지배보수세력들은 좁아진 입지를 만회해보려고 갖은 솔책과 이데올로기 공세를 멈추지 않고 있고 탄압의 교묘한 예봉을 세우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며 운동사회 내부를 교란시키고 분열하려는 책동을 지속해가고 있습니다.

여성들로 특화시켜 보면 여성민중들의 삶의 질곡과 왜곡을 가져오는 많은부분들이 본단으로 인한 한반도의 전쟁위협과 이를 고착화시키면서 여성의 삶을 직간접적으로 억압하는 제국주의의 본질에 눈을 떠가고 반미 통일 투쟁에 스스로 주체가 되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일부 과격한 여학생들만 소위 한총련 여학생들만 외친다는 반미, 통일의 문제를 주한미군철거를 외치는 여성단체들의 소리가 높아가고 기지촌등 첨예한 미국에 의한 직접적 피해와 고질적인 가부장제적인 여성의 성을 차별하고 착취하는 과정속에서 나선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들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여성통일행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이것이 단순히 대세에 따른 한번의 행사라기 보다는 주요한 여성들의 과제로 되어가면서 여성의 삶과 민족의 삶을 총체적으로 인식하면서 사회의 주역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노력이 돋보이는 한해였습니다.

여성들의 삶을 가장 1차적으로 유린하는 성폭력이나 성문제에 있어서 2000년은 참으로 특이할 만한 해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더 이상 여성들이 피해자로 뒤에 숨어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지도층, 운동계층에 까지 전반에 걸친 성폭력을 고발하고 당당히 해결의 주체로 나서면서 성폭력, 매매춘 문제에 있어서 전체적 의식의 전진을 가져오게 했으며 이는 광범위한 성폭력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움직임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난해부터 결성된 여성노조를 필두로하여 여성들의 정당한 노동의 권리를 인정받고자하는 움직임이 개별적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성노조의 형성과 각 사업장별의 투쟁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 선거준비에 들어가기 전에 잊히는 것

- (1) 조국과 민족의 운명에 나의 운명을 일치시켜 들어가야 합니다.
- (2) 여성민중의 삶을 자신의 삶과 동일시하고 여성민중을 중심으로한 대중관을 명확히 세워야 합니다
- (3) 여학생회 조직을 나로부터 건설강화하겠다는 의지로 조직과 대중앞에 결사관철하는 자세를 견지하여야 합니다

2. 2001년 여학생회 선거가 길는 의의

(1) 선거의 의의

- 1) 2000년 한해의 사업과 투쟁을 여학우들과 함께 총화하고 평가하는 자리입니다.
- 2) 2000년의 평가와 더불어 2001년의 여학생회가 나아가야 할 전망을 합의하고 확산하는 자리입니다.
- 3) 지금 당면한 여학생운동의 투쟁과제를 실현해 가는 연속선상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여학우들과 함께 합의확산해 가는 자리입니다.
- 4) 여학일꾼들을 발굴 단련시켜서 여학생운동 역량을 비약적으로 발전 시켜나가는 자리입니다.

(2) 선거의 목표

- 1) 2001년의 여학생운동 더 나아가 여성운동의 전망을 확고히 세우고 합의확산하자.
- 2) 철저한 여학우들에 기반한 여학생운동 대중화의 기틀을 잡고 정형과 모범을 창출하자
- 3) 과여부, 소모임에서 전여대협까지 전일적인 조직체계 건설에 사활을 걸자.

(3) 선거의 과제

"총여학생회 건설, 단위여학생회 건설에 사활을 걸자."

- 1) 선거의 내용적 측면에 있어서

①여학생운동의 전문성을 강화시켜야 합니다.

- 여학생회 선거 다운 여학생회 선거를 치뤄내자

②정치적 내용 본질적 내용을 기본으로 복지 및 학자 공약을 가미해 들어갑시다.

③정책선거를 기본으로 확고히 틀어줘면서 견실치 못한 상대후보의 분열개량책동에 단호히 대처해야 합니다.

2) 선거의 조직적 측면에 있어서

①선거시기 여학생회 선거운동원으로 광범위하게 꾸려서 여학생회 일꾼으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 선거운동에, 학생회에 관심있는 참신한 학우들을 과감하게 발탁 육성해야 합니다

②선거운동원에 대한 교양을 모든 활동에 기본에 두고 진행하여야 합니다.

③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본부의 조직의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고 혁명적으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④대중이 있는곳이라면 어느곳이나 파고들어 대중들과의 결합력을 최대한 높여내야 합니다

⑤여학생운동의 내용을 전체 운동대오와 전체대중과 함께 합의해들어갈 수 있도록 조직적인 논의를 강화해 들어가야 합니다

3) 당면한 투쟁을 펼쳐내는데 있어서

①투쟁사안의 내용을 선거와 따로 놓지 말고 함께 진행하여야 합니다.

②공동의 정책, 투쟁안을 만들고 합의해 들어가도록 합시다.

3. 경제 총론 기조

(0) 몇 가지 핵심정세

(1) 2000년 여성을 둘러싼 변화

1) 주한미군에의한 살인사건-서정만 김성희씨 사건

2) 장원사건 -진보운동진영내의 성폭력을 비롯한 사회 지도층 전반에 걸쳐진 성폭력 문제

3) 6·15 공동선언이후 여성계를 비롯한 전단위의 자주교류 및 통일에 대한 관심고조

4) 일본군 위안부 문제 -2000년 국제법정 및 남북해외 공동 해결노력

5)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투쟁

6) 호주제철폐 가부장제 철폐투쟁

(2) 영역별과제

1) 대중투쟁영역

① 조국통일투쟁

조국통일의 새로운 2001년을 여성의 주동적인 힘으로 맞이하자

① 자주교류의 활성화

- 이북여성 바로알기

- 전여학단위 자주교류의 활성화

② 민족 자주 쟁취투쟁

- 주한미군철거, 소파개정 투쟁

-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투쟁

③ 여성민중 생존권쟁취 투쟁

- 여성노동권 확보 비정규직 권리찾기 투쟁(여성노조와의 연대사업 강화)

- 여대생 취업 문제 (여대생 실업 대책위 구성 및 대학 취업관련 대책강화)

④ 성문화 정착, 성폭력 척결 투쟁

- 매매춘 문제

- 올바른 학내외 성문화 정착

성교육 및 여성학강좌 증강

학내 성폭력 학칙 실체화

⑤연대연합의 강화

지역 여성단체와의 일대일 교류 강화

사안별 대책위 및 공동 연대투쟁의 강화속에서 지역운동체 건설

⑥학원주자화 사업

-복지사업

여학생휴게실 및 화장실 문제 개선

-문화사업

2) 조직영역

①자주적 여학생회 강화

자주적 대중조직으로서 자주적 여학생회의 위상을 되찾자

②기층조직의 건설강화

-과여학생부건설

-소모임

-대의체계 및 공동모임 건설

③사업 방법 형태의 다양화 참신화

여성문화제 및 여성관련 사업의 새로운 형태 및 정형 창출

사이버시대에 맞는 여성운동단위의 사이버 공간 마련 및 활동

④여학생회 전체 운동단위와의 독자성과 통일성

학생회단위와 여학생회와의 의사소통강화

성폭력 및 여학생회 사업 공동활동

⑤전여대협 지역여대협 강화

-전여대협 지역여대협 중앙조직 건설

-사상과 정견의 차이를 뛰어넘는 전국적조직으로 강화하자

-한총련과 단결하여 투쟁하자

4. 선거의 구체적인 실무관련

(1) 후보선출

후보자 선출에 있어서 요건

여학생운동에 대한 신념과 애정 낙관

조직운영 및 대인관계 원만

(2) 선거운동본부건설

1) 선거운동원 확보

2) 선거운동조직건설

3) 선거운동원 교양

4) 각 활동

토론판제

여학생회 건설이 왜 중요할까요?

기간 여학생회 선거에 있어서 나서는 문제점

여학우들의 대중 의식흐름 -여학우들 무엇에 대한 관심?

현재 우리 사회의 여성문제에 대한 시급한 과제

여학생운동에 있어서 나서는 문제점과 과제

선거정책모임 토론 내용

토론 1. 여학생회 여학생운동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란 무엇인가

-대부분 조직사상영역의 과제를 중요한 과제로 제출했습니다.

1. 여학일꾼의 여학생운동가로서의 자긍심과 자기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다.

-체계적인 여학일꾼 단련프로그램 및 교양사업이 절실히 필요하다

2. 여학생운동의 위상정립

3. 여학생운동의 자체 재생산 구조를 가질 것

4. 연대사업의 중요성

-소모임 사업으로의 전화

-여성정세의 담보

-대중투쟁의 흐름을 내울 수 있음

5. 대중사업에 있어서 자기 전문성 강화

6. 대학내 성문화 및 올바른 남녀평등의 상 정립

7. 총여학생회의 자립자활력

토론 2. 여학우들의 의식흐름

1. 긍정적 요소

적극성과 진취성이 날로 고양되어 가고 있음

여성문제에 대한 인식의 폭이 점점 확대되어감

-자발적인 여성문제 소모임이 많이 생김

페미니즘 학습팀 구성 자체 문화제 개최

여성 예술인 활동 활발

총학생회 및 학생회활동에 있어서 두드러지는 경향

정치 및 경제의 주류화되려는 의식이 높아짐-여성지도자과정 및 여성개발프로그램의 활성화

2. 부정적 요소

여성문제를 풀어가는데 있어서 조직된 힘으로 풀어가는데는 아직 한계

여학생회가 여학우의 조직으로 만들어지는 데 아직 부족

요구가 복지적 측면에 머무는 한계

3. 주요관심사

취직 및 결혼 자신의미래에 대한 관심 증가

외모 및 꾸미는 것에 대한 관심 증가

능력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외모를 중요한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사회풍토의 영향

위안부 기지촌 문제는 자기것으로 하는데 한계적으로 느낌

-특정계급 및 과거사로 취급

남성위주의 사회의 영향으로 남성의 논리를 그대로 반영하는 여성들

-소위 남성같은 여성의 등장

-통념상 남성의 긍정적 특질 부정적 특질 모두를 가지고 있음

진취적 자기주장이 강하고 능력적임

잘못된 성문화의 왜곡, 지배의 논리 그대로 관철, 여성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부족
:소위 날 여자로 보지 말라 -기간 여성을 비하했던 것처럼 나를 보지 말라는 말인 동시에 여성으로서
의 긍정성과 정체성 인식의 부족

토론 3. 조직영역 과제-자주적 여학생회 강화

1. 자주적 여학생운동의 정립

(1) 자주적여학생운동이란 무엇인가

자주적 여학생운동은 한반도 이남의 여성들이 겪고 있는 여성문제의 원인을 사회구조적인 외세의 지배와 간섭, 그리고 기형적 자본주의 및 남녀를 분리차별하는 가부장제의 유기적인 결합에 두고 이를 여성 스스로의 단결된 힘으로 깨우쳐 나가고자 하는 것이다.

(2) 자주적 여학생운동과 다른 여성주의 여학생운동 및 여성운동과의 차별성

여학생운동을 풀어가는데 있어서 여성억압의 기원과 본질을 어디에 두는가 여성해방의 과정과 경로을 어떻게 설정하는가 등의 차이에 따라서 여성운동의 흐름들이 다양하게 나뉘는데

대표적으로 전여대협을 위시로한 여성운동의 흐름과 기타 다른 여성운동으로 대별해 본다.

소위 자주적 여학생운동을 민족주의 여성운동으로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여성문제의 원인을 한국사회와 사회 구조적인 모순 그러니까 분단의 구조와 자본주의적인 경제구조에 크게 기인한다고 보기때문에 불여진 운동의 이름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이는 편의상 민족주의 여성주의라고 나뉘어 부르는 것이지 꼭 어떠한 기준이 명확한 것은 아니기에 우리는 우리의 여학생운동이론을 자주적 여학생운동이라고 이야기하는편이 나을 것 같다.

● 여성주의 운동흐름이란

한반도의 여성운동은 실지로 많은 질곡과 어려움속에서 성장해왔다.

구체적인 여성운동사는

99년 전여대협 총회 자료집 참조

70년대 80년대에 들어와 여성노동자들의 의식성장 민족민주운동의 활성화 계급계층의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그간 암흑시기를 겪고 있었던 여성운동에 있어서도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

여성들의 노동문제를 위시로하여 불합리한 법 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많은 여성단체들이 생겨나고 자체적인 활동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이 당시 여성운동의 흐름은 당시의 민주화의 과제와 더불어서 여성해방을 이루려는 생각을 가진 여성운동가들이 많았으며 이는 당시의 운동상을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이 90년대 들어와서 많은 여성운동가들이 여성학에 대한 공부를 하고 유학을 다녀오며 그리고 일정 80년대와는 변화한 사회분위기속에서 민주화의 요구속에서 여성 고유의 목소리를 내오지 못했던 점을 반성하고 여성들의 문제 민주화가 이루어진 후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가부장제적인 요소와 여성 차별적 요소를 중심으로하여 여성들의 정서와 조건에 맞는 여성운동을 주창하기 시작하였다.

여성주의 여성운동의 모태는 여기서 출발하는데 사회구조적인 문제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성들이 겪는 일상의 문제, 그리고 인류 최초의 계급이자 구별인 남녀의 차이와 차별에 목도하면서 성의 문제를 중요시하게 제기하고 이를 중심으로 활동하기 시작하였따.

한마디로 여성주의 여성운동의 흐름은 여성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여성으로서 남성과의 차이 및 여성으로서의 긍정성 여성의 피해자로서의 관점들이 많이 드러난다.

중요한 여성해방의 과제를 양성평등에 두고 양성평등을 위한 활동을 중심에 둔다.

여성의 담론화

여성으로서 긍기시 해왔던 문화에 대한 도전

-월경 페스티벌, 성문화제

여성주의 비판과 수용

우선 여성주의 여학생운동 여성운동 흐름의 긍정적 요소는 자주적 여학생운동내에서 수용하여야 할 것이다.

여성주의 운동에서 우선 여성운동의 주체인 여성에서 그 본질을 시작하여 여성운동 주체인 여성에 대한 긍정적 요소 여성의 생물학적특징을 공론화하고 이를 긍정함으로서 여성주체에 대한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시각형성에 도움을 준다.

모든판단의 기준을 여성의 입장에서 철저한 주체적 입장을 견지하면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여성적 가치와 시각형성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가치전복과 시각의 뒤집음을 통하여 대중에게 참신한 방법을 활용한 사업과 투쟁의 형태를 창출하고 있다

(3) 자주적 여학생회론

왜 우리는 자주적 여학생회 건설을 이야기 하는가

여학생회 건설에 대한 주요 담론

학생회 전체적으로 역량이 많이 축소된 상황에서 여학생회를 세우는 것이 역량 분산이라는 의견

여학생회로 세우는 것보다는 여학생위원회나 여학생부로 세우자는 의견

총여학생회의 위상에 관하여 의견

대부분 어떠한 경우든지 간에 총여학생회 및 여학생회의 위상과 역할에 관한 문제 및 현재 여학생운동과 전체 운동의 역량 속에서의 배합배치의 문제들이 중심적인 담론이라고 볼수 있다.

왜 대중조직인 여학생회를 주창하는가?

- 자주적 대중조직에 의하여 여학생운동은 풀어진다.

자주적 여학생회가 왜 여성민중중심의 위력한 체계인가?

: 역사의 주인, 사회의 주인으로 서고자 하는 자주적인 본성을 집단의 힘으로 구현하기 위한 운동이기 때문입니다. 자주적 여학생회는 사람중심, 학우중심의 사상을 기반으로 하고 또한 민중중심의 사상을 기반으로 하는 학생회 체계입니다.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여학우 중심, 여성민중중심의 사상이 됩니다.

모순이 있는 곳에는 그 모순을 해결하려는 인간의 의지와 투쟁이 있기 마련입니다.

즉 사람은 자신의 자주성이 무참히 유린당한다는 자각을 하면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투쟁을 전개하게 되며 그 과정에서 사람의 자주성은 가장 옹호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있는 곳에 그 사람들의 자주적인 요구와 움직임 속에 늘상 대중조직이 있게 됩니다.

즉 모순이 있는 곳에 자주성을 실현하려는 노력이 있고 그 실현을 집단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여성의 현실은 어떠한가요?

우리 여성은 살아오는 과정에서 아니 길들여져 오는 과정에서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자주적이고 집단적인 본성을 무시당해왔습니다. 정치에서 여성의 뒷은 집안일이라며 사회참여도를 막아나서면서 여성의 정치의식을 낮추어 버렸고 경제에서 여성은 고학력 실업자의 문제가 여성의 저임금 장시간 노동으로만 고용하며(임금은 남성의 60%, 정리해고는 1순위) 차별을 만들었으며 문화에서 성상품화 이

데올로기를 유포하면서 가치판단의 기준이 외모가 중심이 되고 그를 위해 최첨단유행을 따르기 위한 소비와 향락문화 등을 쫓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제국주의의 식민의 근거가 가장 극렬하게 드러난 것이 바로 기지촌여성이나 강제 종군위안부의 문제입니다.

여성의 성을 사고 파는 상품으로 인식하는데 무리없게 이데올로기를 만들고 그 과정에서 군대의 사기 고조라는 명목으로 주한미군의 성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한민족의 여성을 더럽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담요부대라 이름불리워졌던 일본의 식민지시대 유물인 '일본군 강제 종군 위안부'를 그대로 복원시킨 것에 다름 아닙니다.

따라서 지금 식민지 상황 속에서 한민족의 여성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미제국주의의 더러운 음모에 말살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식민지 한국사회에서 자신의 자주성을 억압당하고 있는 우리 여성들은 집단을 지향하는 본성을 발현시켜내는 자주적 여학생회에서 함께 투쟁으로 자신의 권리를 획득해야 할 것입니다.

자주적 대중조직은 우리 사회 성격과 임무에서 나오는 우리 시대의 가장 과학적이고 위력적인 학생회체계이기 때문입니다.

대중조직은 대중의 자주적 이해와 요구에 우선으로 착목하는 기능을 가지고 자주조직은 나라와 민족의 운명에 우선적으로 착목하는 기능을 가집니다. 식민지 한국사회에서는 학우 자신 스스로의 자주성을 실현시킬 권리를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이해와 요구가 일차적으로 민족해방의 과제가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원칙이 무조건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대의 요구, 운동의 조건과 토대, 주체적 역량의 축성정도에 따라 학우대중의 이해와 요구가 그 해당 소요시기에 성장 확대 강화될 때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주조직으로서의 발전은 대중조직이 확대 강화되어져야 함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시기 여학생운동의 요구되어지는 과제로 여학운의 대중화가 범국민 반미항전의 요구에 부흥해서 여학우의 이해와 요구를 투쟁의 의지로 모아내어 확대 강화될 때 위력적인 체계로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회라는 집단 속에 자신을 소속시키고자 하는 요구는 현실 참여의식의 확대를 대변하는 것이고 사회참여로 나아가기 위해 여학우의 처지와 조건의 이해는 개별적으로 풀어질 수 없는 여학우의 이해와 요구를 집단화하고 사회화하는데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요구는 한 개인의 힘으로 풀어지지 않습니다. 여학우의 이해와 요구를 하나로 모아낼 때만이 투쟁의 방향과 방도가 보이는 것이고 집단적인 힘으로 전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주적 여학생운동은 민족자주와 계급해방을 통한 인간해방을 지향한다.

자주적 여학생운동은 여성의 모순과 억압의 기원을 사회구조적인 모순에 기인한다고 보고 이남 사회의 여성문제는 우리나라가 외세에 의하여 지배와 간섭을 받고 있고 식민지 대리정권에 의하여 공고화되어 가고 있으며 매판 자본가들의 성차별적인 분리 지배와 착취를 통하여 남성과 여성의 모순을 격화시켜내고 있다는 것으로 규정한다. 이에 근간하여 여성해방의 과제를 민족자주와 계급해방으로 놓고 이를 해결하며 인간해방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지향점을 밝혀놓고 있다.

2. 기총조직 건설 강화에 관련하여

기총조직 건설 강화에는 단기적인 계획으로 진행되어서는 안된다. 1년만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조직건설 강화의 계획-소위 총여학생회 발전 3개년-5개년 계획 같은 것을 내오고 그에 따른 꾸준한 조직건설 강화의 계획들은 내와야 한다.

(1) 단대 여학생회

(2) 과여부

1) 과여부 발전 특별위원회

과여부에 대한 지도를 총여학생회에서 담보하게 위하여 총여학생회 일꾼이 직접 과여부 일꾼과의 모임을 가져감

모범 사례

전남대학교 총여학생회

96년부터 과여부 발전 특별위원회를 세워서 과여부장들과의 사업을 직접 총여학생회에서 지도
여학생운동 내지는 여성문제에 대한 낮은 시각에서부터의 학습

1년 과여부 사업계획서 작성

과여발특위 자체의 사업 계획

-총여학생회 출범식에 과여발특위 발족식

-과여발특위 일꾼들끼리 소풍

-과여발특위 차원의 가요제 및 행사참여

2) 과여부장학교

과여부장들과 과회장 그리고 단대 여학생회 일꾼들까지 모여서 함께

3) 과학생회 단대학생회와의 3자 간담회

대부분 여학생회는 위상에 대한 논란과 각 단위마다 조직과 주체의 상황이 상이함으로 인해서 그리고
대부분의 일꾼들이 여성문제 및 여학생운동에 대한 이해의 어려움과 이후 사업과 투쟁에서 발생할 여러
가지 의견을 조정 해결하기 위하여 학기초 내지는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실시한다.

3자 간담회라고 하여 단대학생회-단대여학생회-총여학생회 이렇게 세단위가 모여서 하는 간담회를 일컫는다.

4) 과간담회

성과점 : 평소 때 여학생회에 대한 고민을 간담회를 통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일꾼들과의 관계 증진과 여학생회 사업과 요구에 대한 해결의 자리라 봄

한계점 : 간담회의 내용과 운영의 묘를 잘 살려야 한다.

잘못하면 총여학생회의 교양의 자리가 아니면 그냥 서로 할말이 없는 경우가 있고 서로미리 간담회 내용을 조정하여 토론과 합의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과여부 운영위

단과대학 여학생회 내지는 단대 여학생부에서 과여부장과 1주일에 한번씩 운영위를 통해서 사업을 논의하고 학습과 토론을 벌이는 자리

6) 과여부 일꾼을 위한 교양지 발간

(3) 소모임 건설

성과

과여부나 여학생회와는 또 달리 단기간에 여학생운동 일꾼을 키워낼 수 있는 유리한 방도

장기적으로 여학생운동이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유리한 점

학생회에 대한 거부감이나 어려움을 가진 일꾼들을 모을 수 있는 장점

한계

위상의 변화 및 소모임과 여학생회일꾼과의 갈등
소모임 주체의 준비정도가 중요함
안정적인 소모임에 대한 지도 담보

사례

단대여학생회 산하의 소식지편집위원회

성과 : 구체적인 성과물이 눈에 드러남으로써 소모임일꾼들의 소모임의 성과를 직접 느낄수 있으며 단대여학생회의 사업의 하나로 귀결됨으로서 여학생회 사업의 계기 및 대중에게 소식지의 형태로 돌아감으로써 대중성 확보의 차원에서 유리함

극복과제

소식지를 내기 위한 모임으로 전락되서는 안된다.

그저 빤작 소식지를 내기 위한 모임이 아니라 정기적인 모임과 학습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단대의 특성에 따른 소모임

단대별 특성에 맞는 소모임을 건설할 것에 대한 고민

(4) 전반적인 총여학생회의 지도력 강화

총여학생회에 조직사업 담당부서 배치 활동의 내용을 명확히 나오자

조직교육사업의 중요성

조직1부장-골간단위 학생회일꾼과의 사업

조직2부장-여학생회기종 전문성 강화

총여학생회 산하 편집위원회 구성

(5) 기타조직 강화방도

1학여대협

: 경기대학교 총여학생회 시행

1학년 각 과마다 여학우 대표를 세워내고 여학우대표들이 구성원이 되는 1학여대협을 건설하여 모임을 진행 사업을 풀어나가는 방식

성과점: 새내기 사업의 유리한 방도

여대의원제도 강화

1학여대협과 비슷하게 기층여학생회가 건설되기 어려운 조건 속에서 유리한 조직화방도

여학생이 적은 과나 반반인 과에서는 시도해볼만하다.

여학우들이 모여서 여학우들의 대표를 뽑는다.

여대의원의 역할 및 활동에 대한 단대여학생회의 지도 및 설명 및 학우들에 대한 해설이 필요하다.

여대의원을 뽑고 여대의원의 지도를 단대여학생회에서 직접적으로 진행한다.

3. 여학생운동의 전체운동의 독자성과 통일성

여학일꾼과 학생회 여일꾼 모두를 포함하는 여활가모임

학생회일꾼들부터 여학생운동의 주체로 만들어가야 한다

특히 골간단위에 있는 여일꾼들의 여학생운동 및 여성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주체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야 한다.

4. 다양한 형태의 참신한 사업방법 창출

여학우를 지극히 사랑하면 지혜가 생긴다

여학우를 주체로 만드는 사업

여학우의 관심과 지향성을 동시에 추구하여야 한다

여성가요제/여학우 팔씨름대회/자주여성민주남성큰잔치/여자씨름 및 권투/ 여학우돼지잡기/ 쌍쌍닭잡기 대회/

일상적 여론 및 알림사업

화장실통신

여성문화제 사업

여성문제 돌다리 건너기/ 학우 의견 쓰기/돌다리

반미주간

성조기를 밟아라/성조기옷 바꿔가지

여학생운동토론회

주제 및 일일찻집

5. 전여대협 지역여대협 강화

전여대협 지역여대협의 필요성

전여대협 지역여대협은 여학생운동의 발전요구에 기인하여 나타남

전여대협지역여대협 건설의 주동성을 높여내야함

아직까지는 대중에게 낯선 조직-목적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함

전여대협 수련회 및 출범식 등

전여대협의 사업과 투쟁의 대중화

-일반학우들의 참여할 수 있는 형식의 사업을 기획해보자

전여대협을 받아안음으로써 대학 여학생운동 발전의 도움과 자랑 및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전여대협 성폭력규제학칙제정공동대책위

사안별 연대모임

성명서 사업

연대모임 및 상총연대의 강화

토론 4. 대중투쟁과제

1. 여성정세에 대한 토론

(1) 여성정세란 무엇인가, 여성정세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가

여성정세는 한반도의 여성억압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밝혀내고 현재 여성을 규정하고 억압하는 제요소들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타파하기 위한 각계급계층의 여성민중들의 활

동이 어떻게 되고있는지 그로 인한 이후의 변화를 과학적으로 예측하는 것이다.

(2)현재 한반도의 여성정세

여성억압의 주요 원인(모순)

민족모순/계급모순/성모순

여성민중의 삶을 규정하는 요소를 살펴보았을 때 이땅을 살아가는 여성들의 삶의 처지는 우선 이사회의 정치 경제적인 요소를 살펴보는 것이 우선이겠다.

우선 한반도의 정치상황은 제국주의의 최첨병인 미국의 영향력을 들수 있다.

우리나라 군사 및 정보의 꼭대기에는 미국이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상황은 미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통상압력과 경제정책에 의하여 많은 부분 좌지우지 되고 있다. 또한 문화적으로로 정치, 경제적인 영향력과 더불어 미국의 온갖 문화의 또다른 전시장이 되고 있다.

또한 미국뿐 아니라 일본등의 나라에도 그 영향을 많이 받고 있따. 동남아시아의 맹주가 되려고 하는 일본의 야심속에서 군국주의의 부활 및 정치 경제, 문화적인 한국에 대한 간섭이 노골화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외세에 의한 한반도의 군사 정치 경제 문화적인 간섭은 국내의 상황에 커다란 걸림돌로 되고 있으며 특히나 남북이 분단이 되어있는 상황속에서 주한미군주둔 및 한반도에대한 외세의 간섭은 분단을 고착화시키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외세에 있어서 자주적인 입장을 가지지못하는 현 정치권력들은 민중을 위한 정책적 결정보다는 당리당략과 자신의정권의유지를 위한 것을 중심에 둔 정치를 행하고 있으며 특히 수구보수세력은 이러한 한반도 정치를 어렵게 하는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럴듯 민중과 민족을 중심에 두고 있지 않은 정치권들과외세의 간섭은 여성민중들의 권리를 보장하기는커녕 오히려 남녀의 분리를 통한 분할통치 그리고 이러한 차별 이데올로기를 유포서켜서 이중의 이득을 보려하고 있는 것이다.

전통적인 유교적 가부장제와 자본주의 및 외세에 의해 교묘히 유지되는 가부장제

신분제가 철폐되고 헌법상으로 남녀평등이 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실지로 현실에는 아직도 여성과남성의 차이를 차별로 정당화하고 남성과 동등한 인간으로 보지않는 가부장제가 여전히 존재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유교적인 남녀차별의 의식과 결합된 가부장제 의식을 교묘히 결합시켜 여성들을 가정사회 양쪽에서 착취하고 있는 것이다.

(3)올해의 정세

올해의 여성계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여성노동자들의 투쟁

통일준비하는 여성들

일본군 위안부문제 남북과 함께 아시아 5개국이 공동 해결에 나선다

주한미군에 의한 여성범죄 여전히

성폭력문제 사회의 주요한 이슈로

여성들의 연대연합의 강화

전여대협 내부적으로

전여대협 출범식을 한총련 백만학우와함께 진행한 것

여성통일한마당

전여대협 총회, 출범식, 수련회등 안정적 대중적으로 성사

(4) 2001년 여성정세

1)

2000년 남북공동선언 및 이어진 장관급 회담과 이산가족의 교류와 노동절 초청등 북미간의 관계의 급속한 진전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의 변화 및 이남민중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민족대단결 의식의 고취되면서 통일의 주체역량이 축성되어지는 과정으로 통일에 대한 유리한 정세가 조성될 것이다. 특히 내년 김정일국방위원장의 답방과 내년 3월로 예정되어있는 남한 300-500여명의 민간급 교류가 예정되어 있고 이산가족부터의 편지교류 및 구체화되어 가고 있는 남북한의 경제협력들은 이미 급격한 통일로 나아가는 유리한 정세를 조성할 것이다.

이러한 분단의 장벽이 거두어지고 외세에 의한 간섭과 지배에 있어서도 일정 다른 국면을 맞이하게 되면서 우리사회 전반에 대한 변화가 눈에 띌 것이다.

우선 남북한이 화해의 무드로 돌아서면서 군사적 대결이 상당히 해소되고 주한미군등 외국군대의 주둔의 명분이 약해지면서 여성을 억압하는 도구로 되어오는 주한미군의 철거 및 외국군대에 의한 피해와 군사주의 문화의 무분별한 피해들을 걷어낼 유리한 정세가 조성된다. 또한 통일이라는 민족적 중대사안을 펼쳐나가는데 여성들의 참여를 끌어내고 여성들이 주체가 됨으로써 여성입지를 강화하고 여성민중의 유리한 정세를 만들어낼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통일투쟁의 내용에서

2)

제2의 IMF가 다가오고 있다는 한국경제의 위기설이 다시한번 나오고 있다. 한때 1000대를 육박했던 종시가 500선 이하로 무너지고 계속적인 기업들의 도산과 대기업들의 위기속에서 여전히 노동자들의 해고와 구조조정을 통하여 이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노동자들을 비롯한 농민들 전체적인 민중생존권의 정세는 2001년 여전히 위력을 떨치고 있는 신자유주의의 물결과 더불어서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여성들에게 있어서도 이러한 위기는 더욱 실제적이 되어가고 있다.

구조조정의 최전선에 여성이 배치되어 있으며 인권의 사각지대라고 불리워지는 비정규직은 여성들의 대다수를 차지하며 착취의 노골화가 되고 있다.,

여성들의 비정규직화는 계속 지속될 것이며 이로인한 여성들의 투쟁또한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3) 성폭력 매매춘에 대한 투쟁

성폭력 매매춘 문제가 2000년 주요한 이슈로 떠올랐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투쟁들이 전개되고 있으나 여전히 사회의 자본과 가부장제와 결탁되어 근절은 요원하기만하다.

단순한 매매춘 성폭력의 처벌뿐 아니라 재활을 위한 교육과 대책마련까지 함께한 성폭력 매매춘 근절 투쟁이 필요하며 올해의 성과를 이어서 내년에도 지속적인 투쟁들이 전개될 것이다

4)

여성의 권리에 대한 법제도의 이행을 위한 투쟁이 전개될 예정

최근몇년간 여성들의 권리를 위한 법제도의 제정투쟁들이 전개되었다. 이러한 투쟁의 결과로 미흡하나마 많은 법들이 신설되었으나 다른나라들에 비하면 여전히 미약한 수준이며 또한 지금까지 제정에 중심을 두었으나 이제는 시행과 철저한 감독을 주심으로 사법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려한다.

2. 2001년 여성들의 투쟁 방향

(1)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여성

분단으로 인한 여성의 피해

-여성과 통일 교양자료 참조 : 아래 별첨하겠습니다.

1) 의식화 과정

① 민족과 통일에 대한 의식화

▶ 민족애의 강화

우리 사회가 점점 개인주의화 되어가고 각박해지면서 공동체문화가 붕괴되는 과정에서 실지로 많은 전후세대 및 현재 신세대들은 민족이나 국가의 개념이 희박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여성들의 경우에는 가정이나 자신의 주위 사람들에 국한된 사회와 집단의 경험 속에서 민족애를 형성시킬 기회가 드물고 정치에 대한 관심을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적게 가지게 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우리 민족에 대한 긍정성 민족이라는 개념 민족의 운명과 자신의 운명과의 연관성을 옳게 만들어가는 것이 통일 교육의 첫걸음이며 가장 중요한 과제이기도 하다.

▶ 분단으로 인한 여성민중의 피해

통일시대를 각계각층의 민중이 모두 준비해 들어가야 한다.

여성민중에게 유리한 통일시대를 주체적으로 만들어가야 한다

▶ 여성민중 및 여학우의 준비정도에 맞는 통일 투쟁을 만들어가야 한다.

2) 구체적인 방도

① 통일 교육의 활성화

- 민족 주체성에 대한 교육

- 이북에 대한 반북반공 이데올로기를 연공 연북의식으로 : 이북여성 바로 알기 등

② 이북과의 자주교류

- 이북 여성단체 및 여학우들과의 교류를 강화한다

- 교류의 내용의 문제

- 각급단체별 및 사안별 교류내용 마련

자주교류단 및 방북단 모집사업

주체를 명확히 세운다

대중적으로 모집한다.

실지 방북도 중요하지만 활동의 내용에 있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한다.

진행상황 및 진척도를 늘 공개한다.

초청사업

대학별 주요행사에 이북여대생 및 단체를 초청한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학생법정 초청 등

실질적 방북투쟁

이북에 편지 보내기-초청장 접수- 방북 실무접촉(시기 및 인원 활동내용 확정)-방북을 위한 준비 및 대중적 환송회-방북- 환영회-활동보고 및 이후 계획논의

③ 연방제 합의 확산, 국가보안법 철폐, 주한미군 철거, 평화협정 체결 투쟁

2) 여성민중생존권쟁취투쟁-노동문제를 중심으로

① 의식화를 중심으로

여성민중의 노동현실, 여대생의 취업현실에 대한 기본적인 파악 및 공개

② 구체적인 여대생 취업대책

여대생 취업에 대한 정보제공

여성노동자들과의 연계투쟁

실질적으로 대학에서부터 여대생 취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책

다른대학의 사례

여성과 직업전략이라는 교양교과목 신설

여성취업과 지도자 육성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예산을 따내서 신설

여학생부 및 여대생을 위한 대학내의 부서마련 및 예산증설

3) 성폭력 매매춘 근절투쟁

학내 성폭력 근절

성폭력에 대한 대학내 실태조사

성상담소설치 및 성교육정기실시

성폭력규제학칙에 대한 공청회 및 설명회

구체적성폭력 사건 발생시 적극대응

매매춘 근절투쟁

여성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

4) 가부장제 척결투쟁

언어정화운동

호주제폐지운동

-연대사업과 여론화사업을 중심으로

보존 1

가부장제를 끌장내는 투쟁!

가부장제 사회에서 양성이 모두 동등한 사회로 만들자!

대학내 올바른 성문화 정착

학내 성폭력 학칙 실체화(성폭력 규제 학칙 개정 투쟁)

학내 성폭력의 실태와 특성

지난 1994년 8월 서울대우조교 사건에 공동대책위가 서울대학교에서 실시한 학내성폭력에 관한 실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중 83%가 성폭력을 경험하였다고 하였다. 학내에서 성폭력의 가해자는 선배가 49%, 학교친구가 44%, 후배가 3% 등 대부분 아는 사람이 차지했다. 성폭력을 경험한 장소로는 과방, 동아리방, 학생회실 등이 15%, 뒤풀이장소 39%, MT-야유회 4% 등을 차지했고, 공동체모임에서 성폭력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우조교사건을 비롯해 영남대 음대사건, 창원대 법대 송민호교수 성추행사건 등 교수와 제자사이에도 여러 장소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렇듯 여성다면 누구에게나, 언제, 어디서나 일어나는 것이 지금 현실이다. (97년 9대 총여학생회에서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부산대 학내 성폭력 실태조사에서도 80%를 넘는 여학생들이 언어적 유형까지 포함한 성폭력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자료가 유실되어 자세한 정보는 현재 알 수 없음)

학원내 성폭력 사건은 그 사건의 특수성 때문에 발생빈도는 높지만 철저히 은폐되어 감추어져 있는 상태다. 이에 관련된 자료도 미비하고, 공개적으로 자신의 피해를 자신의 피해를 호소하는 학생도 거의 없는 상태다. 결국 피해학생만 개인적인 자구책으로 학업을 중단하거나 피해 다니는 소극적 대응방법으로 졸업식까지 견디는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 그러나 개중에는 여론에 호소하거나 학교 당국에 적극적으로 알려내기도 한다. 그러나 서울대우조교성희롱 사건이나 창원대법대 교수 성희롱사건이 경우 피해자가 학교당국에 호소했지만, 아무런 관심도 받지 못했다. 오히려 사건을 축소시키고, 동료 교수만을 보호하고 두둔할 뿐 문제해결에 소극적 자세로 일관했다. 그러나 주목할 것은 이 사건이후로 학내에서 일어나는 성희롱을 포함한 성폭력의 실상에 학교당국과 교직원, 학생들이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점이다.

* 부산대의 경우

성폭력 규제 학칙 제정과정

학칙 제정의 목소리는 96년부터 꾸준히 얘기되어 왔다.

그 당시 총여학생회의 요구사항은 '성상담소 공간 마련, 성상담소 전문 인력 마련, 학내 성폭력 규제 학칙제정'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학교당국은 그 요구조건 중 성상담소 공간만 마련해주었다. 그러나 전문인력이 없는 상황에서 성상담소는 무용지물이었다.

성폭력 규제 학칙 제정을 가장 핵심적인 공약으로 들고 나왔던 97년 9대 총여학생회는 여학우들을 대상으로 학내 성폭력 실태조사를 벌여내었으며, 학칙안을 학교당국에 제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였다. 실태조사의 결과에 많은 효원인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었다. 9대 총여는 학교당국에 대해 학내 성폭력상담실을 끊임없이 요구하여 98년초 학생생활연구소 내 성폭력상담실이 개설되는 성과를 내왔다.

98년 10대 총여학생회는 초기에 학칙 제정을 위한 총장과의 면담을 진행했었지만 그 이후 꾸준한 연구사업과 학우들과 함께 진행하는 대중사업을 진행하지 못하였다.

그러는 사이에 학교당국에서 갑자기 마음을 바꿔 9월달에 총여학생회의 학칙안을 '학교 마음대로 수정하여 학교측의 안으로 통과시켰다.

이후 성폭력 규제 학칙 개정 투쟁

규제 학칙 제정 이후 부산대에서는 이른바 '노군 성폭력' 사건으로 규제학칙의 문제점이 확인하게 드러났다.

1. 성폭력 상담소의 비전문성 문제
2. 성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심의권 문제

3. 규정 자체의 문제

-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항이 없다.
- 적용범위가 확실하지 않고 협소하다.

4. 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대한 대안이 없는 <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

5. 피해자의 치유보다는 사건에 더 관심이 많은 학칙

이상의 문제가 한 사건에서 드러났고, 이 사건이 농활 전에 공개되어 학내에서 꾸준하게 해결할 수 없어, 농활내에서 성폭력 규제 학칙 개정 서명운동을 벌여냈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2중 3중의 고통을 겪어 결국 가해자와 합의하고 말았다.

하여 개정서명운동을 제대로 총화하지 못하고 99년을 접었다.

2000년 성폭력 규제 학칙 제, 개정 공대위 발족 이후 부산대에서는 성폭력 규제 학칙 개정운동을 벌여가고 있다.

99년에 이어 학내의 잇따른 성폭력 사건을 통해서 규제 학칙의 유명무실이 완전히 드러났다.

현재는 학내 성폭력 근절, 성폭력 규제 학칙 개정을 위한 민족효원 쪽지 쓰기, 사이버 토론회 등을 통해 학우들과 함께 하는 학칙 개정운동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리고 총학생회 학자추와 함께 성폭력 예방을 위한 자치 규찰대를 학교 측에 제안하고 있다.

또한 현재 발생한 도서관 성폭력 사건으로 성폭력 규제 학칙 개정운동을 벌여내고 있다.

(다른 학교의 예를 총화해주세요)

서울대의 경우

서울대는 99년 11월부터 진행한 성폭력 규제 학칙 제정운동이 6월 15일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대한 규정'을 공포함으로써 그 결실을 보았다. 그러나, 서울대 또한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어 실질적인 규제학칙의 성격을 가지기에 한계가 있다.

그러나, 서울대가 벌인 성폭력 규제 학칙 제정 운동은 여타의 모범이 된다.

서울대의 경우 1993년 신정휴 교수 사건으로 성폭력 규제 학칙 제정 운동이 시작되었다. 이해 4000명이 규제 학칙 제정 서명에 동참하였다. 그리고 서울대 내 단대(사회대, 인문대, 공대)에서 성폭력 학생회칙을 제정했으며, 올 9월 30일에는 과에서도 교수와 함께 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을 만들었다.

다만, 학칙 제정의 전반적 흐름을 구하지 못하여, 인문대 학생회칙 제정 과정만 실는다.

서울대 인문대학 자치규약 제정 과정에 관한 약평

우선 전인대 개최 이전에 마땅히 있어야 할 대중적 논의들이 그다지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이었다. 자치규약의 필요성에 대한 대중적인 합의가 부재하였던 상황에서, 규약 제정작업 돌입에 관한 결정과 이후 자치규약안 초안 마련 과정이 대단히 급하게 이루어지게 되었다. 몇가지 쟁점들을 미리 제시하면서 대중의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규약에 관한 환기를 한 다음 자치규약안의 내용을 '공모' 등의 형식을 통하여 대중과 직접 구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보다는, 여우방과 학생회 집행부 인자가 여모등에서 제안한 기존의 '모범안'을 거의 전제하는 수준에서 초안은 마련되었다. 또한 그렇게 마련된 초안을 가지고서라도 전인대 이전에 대중적으로 공표하고 이에 대한 논쟁의 과정을 거치는 공론의 과정이 필요하였으나, 이 역시도 미흡하였다. 예컨대, 성폭력에 대한 규정이나 규제 방식, 그리고 자치규약의 강제성 여부등의 문제는 많은 논쟁이 있을 수 있을 만한 것이었으나(실제 이러한 문제는 전인대 '이후'에 제기되었다!), 대중과의 충분한 공론장 형성을 거치지 못하였고, 이는 이후 자치규약의 '자치'규약으로서의 정당성에 대하여 심각한 회의를 불러오게 되었다.

또한 이러한 논의의 부재라는 문제는 전인대장(場) 안에서 각과 학생회 및 각급 자치단위들의 대표자들이 자신이 활동하고 있는 대중단위에서의 초벌적 논의들조차 대체적으로 부재한 상황에서, 전인대 즉석에서 '처음으로' 성폭력적 대학문화에 대한 공개토론을 벌이고, 뒤이어 학우들을 '대표'하여 설익은 '의결'까지 하게 되는 희극을 연출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는 하나의 '원죄'로서 작용하면서, 이후 벌어진 성폭력 논쟁에서 불거진 자치규약의 정당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넘어, 학생사회의 민주주의와 학생회의 대표성에 대한 근본적 문제까지 제기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러한 일련의 '나쁜 상황'에 이르게된 근본적 원인은 성폭력적 문화에 대한 학생사회내의 논의지반의 부재라는 문제와 함께, 이러한 논의지반을 만들고 대중과의 싸움을 통해 새로운 대중(저항)주체성을 형성하려는 학생회 운동주체 및 여타의 운동주체들의 주도면밀한 계획의 부재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학생회를 자기형성기반으로 한 기왕(既往)의 운동주체들이 성적 차이에 의한 적대에 대체로 둔감했던 것, 또한 이러한 학생사회내 반성폭력 운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할 (여성)운동주체 및 단위들이 인문대 내에서 그다지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을 또한 지적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성폭력 규제 학칙 제, 개정 상의 성과와 한계

성폭력 규제 학칙이 제정, 개정된 학교의 제정, 개정 통로를 총화하기 어려워 부산대의 경우를 가지고 이 투쟁의 성과와 한계를 짚어본다.

성과

- 몇 년 동안의 꾸준한 요구 속에 성폭력 규제 학칙이 제정된 것을 성과로 볼 수 있다.
- 성폭력 규제 학칙의 제, 개정 과정 속에서 성폭력의 심각성을 학우들이 인식하게 되었다.
- 개정 운동의 과정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학칙과 함께 해결해나가고 있어, 학우들의 입으로 학칙 개정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다.
- 학자주와 함께 성폭력 규제 학칙 개정을 논의하고, 학내 성폭력 예방을 위한 자치 규찰대의 요구를 함께 만들어 냈다.

한계

- 학내 구성원들간의 전반적인 인식의 흐름 속에서 개정 운동이 나오지 못한 한계가 있다.
- 성폭력 문제를 총여학생회에서만 하는 일쯤으로 생각하고, 단위 학생회 총학생회와 함께 개정 운동을 벌여내지 못하기에 힘찬 투쟁이 전개되지 못하고 있다.
- 성폭력 처리와 해결에 있어서 아직 양성간의 많은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이후

- 성폭력 규제 학칙 개정운동을 총학생회, 단대 학생회, 동아리 등과 함께 전일적으로 벌여내야 할 것이다.
- 좀더 내용성 있는 성폭력 규제 학칙 개정 투쟁의 의식화 과정이 필요하다.
- 학우들이 개정 투쟁의 주체가 되도록 투쟁을 만들어내야 한다

성교육 및 여성학 강의 증강

-성폭력 규제 학칙 제, 개정 투쟁의 내용으로 반드시 필요하다.

성폭력이 일어났을 때 처리하고 해결하는 것보다 우선되고 중요한 것은 성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 하는 것이다. 더군다나, 얼마전 중고등학교 남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남학생의 대부분이 피상적인 성에 대한 지식으로 성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것이 그릇되게 분출되는 경향이 크다고 나타났다.

이는 대학내 남학생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며, 대학의 경우에는 경험까지 더해져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더 클 것이다. 하기에 학내에서 성폭력을 몰아내기 위해 반드시 성교육이 의무화되어야 한다.

- 특히 여성학의 경우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여성학이 그 관점을 제대로 쥐고 있어야 양성에게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고, 이것이 실천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부산대의 경우만 보아도 여성학 강의를 통해서 얻는 것은 고작해야 피임법 정도이다. 하기에 여성학의 강의 내용을 총여학생회에서 제안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부산대의 경우, 여성학관련 강의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고, 총여학생회에서 공약으로 내건 적이 있다. 그러나 그 수준은 문제제기와 앞으로 바꾸자는 내용에 머물고 있다.

이에 연세대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방법을 소개한다.

I. 여성학 모니터링 팀의 구성

2000년 1학기에 개설되는 모든 강좌를 대상으로 하여 각 수업당 2~3명의 모니터링 요원을 모집합니다. 모니터링 팀은 2주에 한 번씩 모여서 그 기간 동안의 수업내용을 평가하고 수업에 관해서 느끼는 문제점이나 생각들을 상세하고 구체적

으로 토론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모니터링 팀은 여성학 수업의 평가와 달리 여성학을 듣는 학생들과 여성 자치단체, 그리고 여성학 강사가 모여서 구체적인 문제제기에 대한 실천적인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II. WORK-SHOP - 모니터 결과를 평가하고 제기도니 문제점들에 대한 논의와 이를 바탕으로 한 대안적인 여성학 강좌를 모색하는 자리. 이 자리에서는 앞으로의 여성학 수업의 방향을 찾아내고 학내 여성운동의 단위들과 총여학생회, 여성학 강사들이 연계된 여성학 수업 소통 공간을 확보의 일들 진행

III. 방학 중 기획강좌 - 워크샵을 기반으로 새로운 여성학의 시험강좌 진행

전여대협 공대위로 모아지는 성폭력 규제 학칙 제, 개정 투쟁

지난 5월 전여대협 성폭력 규제 학칙 제, 개정 공대위가 발족하였으나, 전국적으로 전일적인 성폭력 규제학칙 제, 개정 투쟁의 흐름이나, 성폭력 근절을 위한 흐름을 주도적으로 벌여내고 있지는 못한 상황이다.

특히 전여대협 공대위의 활동의 강화가 요구되는 것은 성폭력이 어느 한 지역, 한 대학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사회적인 문제이기에 전국적으로 동시에 투쟁을 벌여내야 더욱더 힘있게 진행될 것이다.

@@과 미스@@ 없애기 !

신입생활영희, 모꼬지 등지에서 많은 과에서 그 과의 남학생들을 여장하여 미스 @@ 대회를 진행한다.

이 행사는 대개 여성의 성, 특히 가슴과 각선미만을 확대 과장하여 표현한다. 더군다나 남성을 여성으로 분장시키는 것 자체가 재미를 위한 것이다. 이런 행동은 여성에 대한 왜곡된 관점에서 출발한 것이다. 하기에 이런 과, 동아리, 동문 행사를 없애기 위한 과정이 필요하다.

- 총여학생회에서 제안하여, 각 과별로 없어지는 추세였으나, 다시 부활하고 있다.

이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이를 학우들 속에서 여론화시켜내야 한다.

호주제 철폐 투쟁

→ 호주제는 여성을 법적으로 남성의 종속적 지위로 규정하고 있다. 그 결과 우리 사회는 지독한 남아선호사상에 빠져 있고, 여성은 출생자체부터 위험 당하는 처지에 있다.

호주제 철폐 투쟁은 이 사회를 유지하고 있는 남성중심의 기초를 없애는 투쟁이며, 양성평등의 사회로 가기 위한 초석이라 할 수 있다.

하기에 현재 여성단체 별이고 있는 호주제 철폐를 위한, 헌법소원, 서명운동 등에 함께 하자.

물론 아직 호주제의 대체안이 제대로 서지 않은 문제점이 있지만, 대체안이 제대로 서지 않았다고 해서 내버려두고 있어서는 되지 않는다.

여학단위에서 할 수 있는 호주제 철폐 운동으로는, 서명운동, 부모성함께 쓰기(혹은 이름만 쓰기) 등의 방법이 있다.

성매매

- 작년말에 있었던 김강자 서장의 반짝 단속으로 우리 사회에는 그나마 성매매에 대한 경각심이 일었었다. 그러나 반짝 쇼 이후 다시 성매매 문제는 기억의 저편으로 넘겨졌고 그 와중에 군산 쉬파리골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로 죽어간 5명의 여인은 포주에게 강금 당한 채 성노예로의 삶을 살아야했다. 이들은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 만연한 성매매 현장의 처절한 단면이다.

*연대연합의 강화에 대해서

-지역여성단체와의 일대일 교류 강화

-사안별 대책위 및 공동 연대투쟁의 강화 속에서 지역운동체 건설

● 연대연합의 중요성

90년대 후반에 들어서 여학생운동은 더욱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고 민중들의 삶에 더욱 구체적으로 다가가고 있음이 특징이다. 그만큼 대중들의 이해와 요구가 양적으로 질적으로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그에 반해 여학생운동의 대중조직인 총여학생회의 현실은 어떠한가? 아니 굳이 총여학생회가 아니더라도 여학생위원회든 여성위원회든 그어떤 체계의 공간이든 사람이 없고 재생산구조가 만들어지지 않아 고민이 많다. 여기에 각 학교들간의 연합, 여성단체와의 연대가 중요한 이유가 있다. 여학생운동을 전문화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그 전문화가 곧 여학생운동의 조직력을 담보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는 지점에서 연합, 연대가 중요한 것이다.

● 서울지역

서울지역은 사안별 대책위가 비교적 활발하게 구성이 되고 있다. 예를들면 올 상반기 통신공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군가산점제를 반대하는 모임, 동두천에서 이정숙씨가 사망했을 때 군사지역 매매춘을 반대하는 여성들의 모임인 CAMP가 만들어졌고 IMF이후 여성노동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전국여성노동조합과의 연대체인 '노동지기'가 결성되었다. 사안별 대책위는 사상과 정견을 뛰어넘어 결성된다는 측면에서 여학생운동의 질적 발전을 도모하기도 하지만, 이후 하나의 지역운동체로 건설되기까지는 아직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 한계가 무엇인지...

주체의 부재

여성관련한 사안별 투쟁은 하고 있지만 자주, 민주, 통일을 지향하는 여학단위와의 소통이 부재한 것이 사실이다. 그 중간다리 역할이 필요하다.

● 총여의 소통방법

-단위의 자립자활력을 높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건 단련된 일꾼이 그 단위로 들어가 정치사업하는 것이다. 물론 이과정은 2년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지만 확실하게 변혁운동의 한 길에서 여성운동을 지향하는 우리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골간일꾼들을 정치사업하는 것이다. 새학기가 시작되기 전 모든 학교가 일꾼 수련회라든지 일꾼 교양의 자리가 있을 것이다. 그 자리부터 시작해서 총여학생회의 정치사업을 할 수 있는 모든 소통공간을 장악하는 것이다. 가장 많이 대두되는 일꾼 교양은 성폭력에 대한 것이고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기도 하다. 특히 각 단위 대표자들에 대해서는 이에 철저하게 교양할 필요가 있다. 대표자는 우리운동의 얼굴이기 때문이다.

또 기자촌 활동이나 여학생들만의 모꼬지등을 각 단위 골간여활동가들에게 제안하는 것이다. 특히 기자촌 활동은 여활동가들이 관심을 많이 갖는 활동으로 여학생운동을 이야기하는 데 좋은 프로그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공활이든 농활이든 여성민중의 삶으로 이야기하는 것 또한 골간일꾼들을 교양 단련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기도 하다.

-총여에서 다양한 모임을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그 모임은 총여의 정체성을 확실히 밝힐 수 있는 모임이어야 한다. 예를들면 여성언론 기관인 편집위원회를 만든다든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모

의법정에 함께 할 모임을 만드는 것, 또는 기지촌 활동을 다녀온 사람들이 모임을 만드는 것 등이다. 다만 모임의 주체가 명확해야 한다.

● 지역운동체 건설을 위한 제안

운동이라함은 집단적인 것이어야 한다. 사람의 힘이 집단적이고 조직적으로 모아졌을 때만이 민중승리의 그 목표지점에 더 다가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지역운동체건설을 위한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보다 넓은 지역운동체 건설을 위해서는 사안별 대책위, 또는 연대모임에 깊이있게 연대해야 한다. 그 연대모임 안에서 우리의 투쟁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 여성주의네 워네 하며 서로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좀더 풀 넓게 그 운동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다양하게 제기되는 여성운동의 흐름에 깊이있게 연대하고 우리가 가져가야할 자,민, 통의 원칙을 놓치지 않는 것이 바로 여성민중에게 복무하는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